차 례

제 1 과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도 하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유치원에 다니시던 6살 때의 어느 봄날 셈세기공부시간이였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은 《하나 더하기 하나》를 배워주었습니다.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이때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조용히 일어서시더니 《선생님,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도 하나가 되는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교양원선생님도 어린이들도 놀라운 눈길로 **김정일**대원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진흙공작을 할 때 자신께서 빚은 진흙덩이와 동생의 진흙덩이를 합쳤더니 한덩어리가 되였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또 꽃나무에 물을 줄 때에도 물방울이 서로 합쳐지니까 한방울이 되더라고 하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정말!》 하며 술렁거렸습니다.

댁으로 돌아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날 밤 더 깊이깊이 생각하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양원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하나에다 하나를 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는 그저 하나가 되는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럿이 합하여 하나가 될 때에는 굉장히 큰 하나가 됩니다.》

그러시고는 아버지장군님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마음도 합치면 하나가 되고 이 힘은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은 새로운것을 발견하신 **김정일**대원수님을 놀라움과 기쁨에 넘쳐 바라보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리신 나이에 벌써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뛰여난 생각을 해내시였습니다.

제 2 과
공작시간에 지으신 공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어머님을 따라 평양제사공장(오늘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가보시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실뽑는 누나들이

냄새가 나는데서 터갈라진 손으로 일하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 누나들의 손이 왜 저렇게 터졌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하루종일 더운물에 손을 잠그고 일하기때문이라고 알려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집에 돌아오셔서도 누나들의 터갈라진 손이 자꾸자꾸 생각나시였습니다.

그후 유치원에서 있은 공작시간이였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은 집을 지어보라고 나무토막들을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벽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며 집을 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무토막을 앞에 놓고 생각에 잠기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문득 동무들에게 우리

힘을 합쳐 큰 집을 짓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시간이 다되자 선생님은 매 책상을 돌아보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지으신 큰 집은 둘레에 울타리를 친데다 높은 굴뚝까지 세워져있었습니다.

《잘 지었군요. 그런데 이거 무슨 집이예요?》

교양원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씩씩하게 대답하시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공장입니다. 냄새도 안나고 손도 트지 않는 공장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제사공장에 다녀오신것을 알고있던 교양원선생님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리실 때부터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우시였습니다.

제 3 과
신발장에 붙이신 그림

어느날 유치원공부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두 아이가 신발장에서 꼭같이 생긴 두컬레의 신발을 꺼내놓고 자기 신발을 찾지 못해 다투고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생각이 깊으시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셔서도 그 생각을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 어떻게 하면 글 모르는 애들이 신발장에서 자기 신발을 인차 찾게 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머리를 잘 쓰면 좋은 생각이 난다고 말씀해주시였습니다.

방안을 휘둘러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

께서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색종이를 보시였습니다.

《어머니, 색종이!》

어머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며 색종이는 7가지 색갈밖에 없는데 유치원애들은 훨씬 더 많지 않은가고 하시였습니다.

한참 생각하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두눈을 반짝이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색종이로 비행기, 땅크, 사과 같은것을 오려서 신발장 칸마다 붙이면 되겠지요?》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아드님의 뛰여난 생각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여러가지 모양으로 오린 색종이그림을 신발장 문마다에 붙이시였습니다. 웃줄에는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비행기, 땅크 같은 그림을 붙이시였고 아래줄에는

녀자애들이 좋아하는 사과, 배, 복숭아 같은 그림들을 붙이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제 마음에 드는 신발칸을 차지하고 밝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생각이 남달리 뛰여나시였습니다.

제 4 과
사람은 노래속에 살고있어요

온갖 새들이 우짖는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무슨 새인지 잘도 운다.》

정원에서 김정숙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집어머니가 혼자소리처럼 말하였습니다.

이때 옆에 계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머리를 기웃거리시며 어째서 새가

운다고 하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러시더니 새가 우는게 아니라 《도라쏠미미쏠도》하고 노래부른다고 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 순간 마당건너편에서 《빵 빵 빵》 하는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들리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습니다.

《빵 빵 빵… 이건 〈동무들아 준비하라〉할 때 〈동무들〉 하는것과 같아요. 그렇지요? 어머니.》

어머님께서는 꼭맞는 그 말씀에 기뻐하시며 아드님을 집안으로 데리고들어가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어서 풍금으로 자동차경적소리를 내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도- 도도-》

하고 자신있게 건반을 누르시였습니다. 그 소리는 노래의 《동무들》하는 음과 꼭 같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을 보시며 자동차도 노래부른다고 하시였습니다.

《가만 들어보렴, 자동차만이 아니라 기차도 전차도 자전거도 다 노래부르지.》

어머님께서 말씀하시였습니다.

때마침 멀리에서 기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다시 풍금으로 그 소리를 내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사람은 노래속에 살고있어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음악에 누구도 따를수 없는 재능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5 과
새 벽 훈 련

어느날 이른새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두바퀴자전거를 타고 못가를 씽씽 돌고계시였습니다.

이때 댁에서 묵고있던 한 투사선생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투사선생님에게 자신의 새벽훈련을 보아달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자전거손잡이를 한손으로만 잡으시고 앞으로 쏜살같이 몰아가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손에는 권총을 쥐시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겨냥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팔을 곧추 펴시고 하늘높이 나는 까치를 겨냥하실 때였습니다. 자전거 앞바퀴가 그만 휙

방향을 꺾었습니다.

투사선생님은 《아이쿠!…》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뜨는 순간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못에 떨어지시는것만 같았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느새 앞바퀴를 제대로 돌리시고 여전히 겨냥훈련을 하고계셨던것입니다.

잠시후 자전거에서 내리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투사선생님에게 부족점이 무엇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가슴만 조이고있던 투사선생님은 그렇게 훈련하시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겠는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늘 아무리 힘든 일도 자신심을 가지고 대담하게 접어들어야 한다고 일깨워주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

시였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은 큰일을 치지 못합니다.》

(과시 백두산빨찌산의 아들이 다르시구나!)

투사선생님은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위대한 대원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시절부터 대담성을 키워나가시였습니다.

제 6 과
영화를 보시며

어느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새로 나온 예술영화를 보시였습니다. 영화는 주인공이 혁명가

로 자라나는 이야기를 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머님께 조용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커서 어른이 되였는데 저 집의 나무들은 자라지 않고 그냥 있어요.》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아드님이 그처럼 영화를 눈여겨보시는데 감탄하시였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가려보지 못했구나. 사람이 자랐으니 나무도 자라야지. …》

《그러니 저 영화는 꾸며낸것이 틀림없어요.》

영화가 끝난 후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에게 영화가 재미있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잘 찍지 못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놀라시며 그게 무슨 말인가고 재차 물으시였습니다.

이때 옆에서 밝게 웃고계시던 어머님께서 아드님이 이야기하신것을 말씀드리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미처 찾아내기 힘든 결함을 알아냈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을 하나 보시여도 그저 스쳐보내지 않으시는 남다른 관찰력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7 과
자전거경기

1948년 6.1절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다니시던 유치원에

서는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전거경기에 나가게 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 방긋 웃어보이시며 운동장으로 나가시였습니다.

《호르륵－》 호각소리가 길게 울리자 자전거선수들이 일제히 달리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맨앞에서 씽씽 달리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고는 자전거에서 내려 되돌아서 뛰여가시는것이였습니다.

그곳에는 한 자전거선수아이가 넘어져 엉엉 울고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를 일으켜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벗겨진 신발을 신겨주시고 자전거에 태워주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다시 자전거있는데로 달려가시였습

니다.

그사이에 두 선수가 앞서 달리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힘껏 달리시여 한 선수를 따라앞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달려야 할 거리가 끝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쉽게도 2등을 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관람석에 계시는 어머님을 바라보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어서 오라고 두팔을 벌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달려가 안기시자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을 뜨겁게 안아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넘어진 동무를 일으켜주었으니 1등한것보다 훌륭하다! 장한 일을 했구나.》

이 말씀에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자신보다 동무를 먼저 생각하시였습니다.

제 8 과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수 없어요

어느 여름날 점심시간이였습니다.

군사놀이를 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급히 댁으로 뛰여오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들어오실 시간이였던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줄지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벗겨놓았던 목단추를 단정히 채우시고는 양산을 들고 정문쪽으로 달려가 조용히 서계시였습니다.

이때 한 항일투사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투사아저씨는 **김일성**대원수님을 자기가 맞이하겠으니 어서 옷을 벗고 세수를 하면 어떤가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일없어요. 아버지장군님을 맞이하는 일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할수 없어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시였습니다.

해볕은 더욱 뜨겁게 내려쪼이였습니다.

투사아저씨는 생각다 못해 나어린 대원수님께 그럼 양산이라도 펼쳐드시

라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쓰실 양산인데 내가 쓰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그냥 두손으로 양산을 들고 서계시였습니다.

시간이 퍽 지나서야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돌아오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달려가 차문을 여시고 **김일성**대원수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얼른 양산을 펼쳐드시였습니다.

《우리 **정일**이가 정말 용쿠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대견해하시며 해빛같은 웃음을 지으시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마음은 누구도 따를수 없었습니다.

제 9 과
비오는 날에 뜯어오신 쑥

어느 비오는 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비에 젖으신채 어머님께로 달려오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쑥 한줌을 내미시며 이 쑥으로 발에다 뜸을 뜨시라고 말씀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영문을 몰라하시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오늘은 비가 와서 어머님의 발이 더 아프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마음을 헤아리시였습니다.

얼마전에 한 녀투사선생님이 어머님께 산에서 싸울 때 상하신 발이 아프지 않으신가고 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는 인젠 괜찮다고 하시며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이면 좀 쑤셔난다고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마디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의 그 말씀을 잊지 않고계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이날 어머님께서 발이 아프실 때면 뜸을 뜨시던 일을 생각하시여 쑥을 뜯어오신것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아드님께 감기들겠으니 어서 옷부터 갈아입자고 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난 일없어요. 어머니의 발만 아프지 않으시면 난 비를 맞아도 좋아요.》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밖에서는 그냥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가로 다가가신 **김정일**대원수님께

서는 이담에 크면 구름을 몰아다가 논밭과 산우에만 뿌려주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러면 곡식이랑 나무는 잘 자라고 어머니발은 안 아프겠지요라고 하시며 밝게 웃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머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은 이처럼 뜨거우시였습니다.

제 10 과
바다만큼 큰 배

남포의 로동자아저씨들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큰 짐배를 만들어냈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시고 어머님과 함께 새로 만든 배를 바다에

띄우는것을 보시였습니다.

커다란 배는 움씰하고 바다로 미끄러지더니 물갈기를 일으키며 둥실 솟아올랐습니다.

순간 만세소리, 박수소리가 바다가를 뒤흔들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기쁨을 금치 못하시여 손벽을 치시였습니다. 대동강에서 보시던 쪽배에는 비할수도 없이 크고 멋진 배였습니다.

넓고넓은 바다에 떠서 둥실거리는 배를 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문득 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물으시였습니다.

《어머니, 왜 로동자아저씨들은 좀 더 큰 배를 못 만들었나요?》

뜻밖의 물으심에 어머님께서는 놀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바다는 저렇게 넓은데 배는 바다보다 작지 않은가고

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나라가 갓 해방되여 아직은 저렇게 작은 배밖에 못 만들지만 앞으로는 더 큰 배를 만들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서 커서 아버님을 도와 큰 배들을 많이 만들어 조국의 바다를 꽉 채우라고 하시였습니다.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제 바다만큼 큰 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리신 나이에 그처럼 통이 크신 아드님을 기쁨속에 바라보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시절부터 무엇이나 통이 크게 생각하시였습니다.

제 11 과
인민군대가 될터이다

유치원에서 학부형회의를 앞두고 유희를 준비하던 때에 있은 일입니다.

어린이들은《나는 나는 될터이다》라는 제목의 노래와 춤도 련습하게 되였습니다. 한명씩 춤을 추며 앞으로 나와 자기의 희망을 노래하는 재미나는 노래춤이였습니다.

맨 처음으로 《교육가》가 나오게 되여있었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교육가가 될터이다라는 노래를 부르며 선참으로 나오시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되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은 웃으며 인민군대가 되면 나중에 나오시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제일 좋은데 왜 나중에 나오는가고 되물으시였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은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감탄하였습니다. 어른들도 하지 못한 생각을 나어린 대원수님께서 해내셨기때문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대로 인민군대가 될터이다를 첫 순서에 놓고 련습을 하게 되였습니다.

순서를 고쳐놓으니 정말 인민군대가 제일이라는 생각도 강해지고 노래와 춤이 모두 기백이 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씩씩하고 명랑한 목소리로 나는 나는 될터이다, 인민군대가 될터이다라고 노래를 부르시며 춤을 추시였습니다.

아이들은 합창으로 옳다 옳다 인민군대가 될터이다라고 노래를 받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인민군대를 첫자리에 놓으시였습니다.

제 12 과
미국놈을 승냥이로

어느날 아침이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나어린 아드님을 부르시여 미국놈을 때려부시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곧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였습니다. 몽둥이를 추켜든 인민들이 미국놈에게 달려드는 그림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림을 그렸다가는 지우고 다시 그렸다가는 또 지우

군 하시였습니다.

시간은 퍼그나 흘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 그린 그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시였습니다.

한동안 그림을 보시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미국놈을 사람이 아니라 승냥이로 그릴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미국놈은 악착하고 교활한 승냥이라는 생각이 드셨기때문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종이우에 승냥이모양을 한 미국놈을 그리시였습니다. 그곁에는 피흘리며 쓰러진 어린이를 그려넣으시였습니다.

털부숭이승냥이에게는 미국놈의 군복까지 입혀놓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리시고도 어딘가 잘되지 않으신듯 연필을 꼭 쥐신채 생각을 거듭하시다가 그림을 또 고

쳐그리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미제승냥이놈이 우리 인민들의 몽둥이에 겁이 나서 총을 떨구고 부들부들 떠는 모양을 그리시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였습니다.

그림을 보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미국놈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아주 잘 그렸다고 칭찬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원쑤 미제를 끝없이 미워하시였습니다.

제 13 과
《어서 신어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강원도의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시였을 때였습니다.

이것을 안 그곳 사람들은 서로서로 길가에 달려나와 **김정일**대원수님과 어머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속에는 나어린 녀자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는 발가락이 나오는 다 해진 고무신을 신고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곁에 있던 한 녀인이 그것을 보고 저 애는 싼달을 신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고 엄하게 꾸짖으시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승용차가 있는 곳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시더니 새 신발을 한컬레 가지고오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먼길을 떠나시는 나어린 아드님께 낡은 신발과 바꾸어신으라고 사주신것이였습니다.

《어서 신어라. 이건 내 신발인데 네 발에도 맞을거야. …

이제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 좋은 신발을 마련해주신단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녀자애의 해진 고무신을 벗기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였습니다.

모여섰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김일성**장군님의 아드님이 정말 다르시다고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남달리 인정이 많으시였습니다.

제 14 과
외국인장령과 나누신 이야기

공화국이 창건된 후의 어느날 한 외국인장령이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였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의 기발이 제일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나라 기발은 붉은색으로만 되여있지만 우리 나라 기발은 붉은색과 흰색, 푸른색으로 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 기발에는 붉은 오각별도 있다고 하시며 매 색갈의 깊은 뜻을 이야기해주시였습니다.

장령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자기 나라 기발을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대하여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그는 자기 나라의 처녀영웅 조야에 대하여 자랑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야는 열여덟살이지요?

하지만 금순누나는 아홉살이였어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동단원 금순누나가 조직의 비밀을 지켜 원쑤놈들과 끝까지 싸우다 희생된 이야기를 해주시였습니다.

장령은 **김정일**대원수님의 이야기에 끌리여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습니다.

댁을 떠날 때 그는 김정숙어머님께 자기 나라가 제일이라는 아드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당해내지 못하겠습니다, 꼭 **김일성**장군님 그대로이십니다라는 말을 남기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우리 나라, 우리 인민이 제일이라는 마음을 지니고계시였습니다.

제 15 과
벌떼속에서

어느 가을날이였습니다.

꼬마들이 나무숲에서 놀다가 벌집을 쑤셔놓았습니다.

《벌이다!》

놀란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머리를 싸쥐고 땅우에 엎드리더니 대굴대굴 굴면서 큰소리로 울었습니다.

따벌들은 그 애의 머리우에서 떼지어 감돌며 사납게 앵앵거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 애를 도와줄 생각은 못하고 겁이 나서 주먹을 쥐고 멀리 달아났습니다.

지나가던 어른들도 안타까와하며 그

애더러 빨리 뛰여오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애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리를 싸쥐고 발버둥질만 쳤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집뜨락에 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달려오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벌떼속으로 쏜살같이 뛰여드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어느새 웃옷을 벗어 휘두르시며 재빨리 그 애의 손목을 잡고 힘껏 달리시였습니다.

벌들은 한자리에서 맴돌며 더는 따라오지 못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애의 머리를 살펴보시며 벌에 쏘인 자리를 입김으로 불어주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그 애를 데리고 댁으로 가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사연을 들으시고 약도 발라주고 붕대도 매주시였습니다.

그 애가 돌아간 다음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께 처음보는 애 같은데 어느 집 아이인가고 물으시였습니다.

《나도 처음 보는 아이예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잘 아는 사이인줄 알았다고 하시였습니다.

《모르는 애지만 따벌들이 덤벼드니까 도와줬어요. 어머니가 남들이 어려워할 땐 도와줄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환히 웃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남을 위하여 위험한 곳에도 뛰여드시였습니다.

제 16 과
《지》자로 만드신 말

어느날 유치원에서는 글자를 가지고 말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오》자 달린 말만들기가 끝나자 교양원선생님은 《지》자를 내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방안에 《예!》 하는 쟁쟁한 목소리가 울리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지구, 지도, 지주》라고 큰소리로 대답하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야!》 하고 손벽을 쳤습니다.

교양원선생님도 단번에 말만들기를 3개씩이나 하신 나어린 **김정일**대원수님

께 박수를 쳐드리며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구는 무엇인가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대답하시였습니다.

《지구는 사람이 살고있는 땅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사는 땅덩어리를 종이우에 그림으로 그린것이 지도입니다.》

교양원선생님은 감탄하면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주란 무엇인가요?》

《지주는 농민의 땅을 빼앗아가지고 저 혼자만 잘 먹으면서 농민들을 못살게 구는 놈들입니다. 지주는 일제놈과 같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런 지주들이 남조선에 많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대답을 들으며 교양원선생님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무엇이나 막히는것이 없이 잘 알고계시였습니다.

제 17 과
어머님의 일손을 돕는 시간

어느 가을날이였습니다.

늘 자신의 건강은 조금도 돌보지 않고 쉬임없이 일하시던 어머님께서 앓아누우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침도 못드신 어머님을 생각하시여 손수 죽을 쑤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죽을 좀 드시자 더운물을 떠다드리시고 손발도 주물러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뜨거운 마음에 병이 다 나아지는것 같으시였습니다.

정말 어머님께서는 다음날로 일어

나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과표를 다시 짜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님의 일손을 돕는 시간》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밖에 나가 즐겁게 노시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곧 집으로 돌아오시였습니다.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부지런히 집안청소를 하실 때 한 동무가 찾아왔습니다. 그 동무는 그런 일은 어른들이나 하는것이 아닌가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동무에게 우리 집에서는 내가 청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드린다, 나는 어머니를 도와드릴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하시였습니다.

책상과 창턱, 마루를 차례로 닦아나가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머님의 일손을 힘껏 도우시였습니다.

제 18 과
이 옷을 입고 같이 나가 놀자!

찬비가 내린 가을 어느날이였습니다.

유치원마당에 생긴 물웅뎅이에 한 어린이가 놀다 넘어졌습니다. 아래웃옷이 다 진흙범벅이 된 그 애는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을 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께서는 그를 일으켜주시고 세면장으로 데리고가시였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김정일**대원수님을 칭찬해드리며 어서 나가서 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진 아이를 낮잠자는 방으로 데려다주면서 옷이 마를 때까지 담요를 쓰고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쩐지 그 애 생각에 그냥 뛰놀수가 없으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있는 방으로 가시여 창문으로 들여다보시였습니다.

그 애는 창문앞에 서서 부러운 눈길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내다보고있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급히 댁으로 뛰여가시여 자신의

새 옷을 가지고오시였습니다.

《자, 이 옷을 입고 같이 나가 놀자!》

그 애는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시간이 퍼그나 흐른 뒤였습니다.

낮잠자는 방으로 갔다가 그 애를 찾아 밖으로 나온 교양원선생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담요를 쓰고있어야 할 그 애가 새 옷을 입고 뛰놀고있었기때문이였습니다.

그 애가 입은 새 옷이 **김정일**대원수님의 옷이라는것을 알게 된 교양원선생님은 그 애더러 어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 놀고나서 갈아입게 하자고 하시면서 그래야 이 애가 깨끗한 옷을 입고 집에 간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동무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따뜻이 돌봐주시였습니다.

제 19 과
스 키 타 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리실 때부터 스키타기를 매우 좋아하시였습니다.

산과 들이 온통 흰눈으로 덮인 어느해 겨울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나어린 아드님께 발에 맞는 스키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며칠동안 스키를 타고 달리는 법을 익히시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낭떠러지를 날아내리고싶어하시였습니다.

아드님의 마음을 아신 **김일성**대원수님

께서는 어느 일요일 나어린 아드님을 데리고 한 등판에 오르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낭떠러지에서 날아내리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몸소 동작까지 해보여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둔덕에서 몸을 솟구신 다음 그대로 낭떠러지를 날아내리시였습니다. 그리시다가 그만 눈무지속에 파묻히시였습니다.

휘뿌려진 스키지팽이를 찾아쥐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신들메를 한번 더 조이고 등판에 오르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무엇이 잘못되였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다시 달려내리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눈판에 떨어지는 순간에 또 넘어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시 오르고 날아내리고 하시면서 몇번이나 련습을

거듭하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자, 오늘은 그만하자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안예요, 난 오늘 끝까지 다 배우겠어요.》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물러서려고 하지 않으시였습니다.

무릎과 팔굽이 몹시 아프시였지만 참고 낭떠러지를 또 날아내리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그 힘든 동작을 다 배우고야마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정말 기쁘시였습니다.

《아버지, 스키라는것도 별게 아니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한번 마음다진 일을 끝까지 해내신 아드님을 보시는것

이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한번 결심하신 일은 끝까지 해내시였습니다.

제 20 과
은방울꽃다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함께 대성산에 가시였을 때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수많은 꽃들가운데서 은방울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이 꽃은 아름다와서도 좋지만 향기가 그윽해서 더욱 좋다.》

아버님의 말씀을 새겨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은방울꽃을 정

히 떠가지고 오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뜨락에 심으시고 정성껏 가꾸시였습니다.

은방울꽃이 피여난 어느날 이른아침이였습니다.

정원을 거니시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은방울꽃앞에 이르시여 《이 은방울꽃은 언제 보나 좋거든. 아름답고 향기롭고!…》라고 하시며 매우 기뻐하시였습니다.

그후인 1949년 봄날이였습니다. 그날은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평양으로 돌아오시는 날이였습니다. 비행장에는 **김일성**대원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비행장에 마중을 나가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 인사를 올리신 다음 은방울꽃다발을 드리시였습니다. 눈속에 파묻혔던 꽃뿌리를

화분에 떠옮기시고 해빛을 따라 옮겨가며 피워오신 꽃이였습니다.

그것을 받아안으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옆의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내가 은방울꽃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일찌기 피워가지고 나왔소.》

환영사업이 끝나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승용차에 오르시였을 때였습니다. 은방울꽃향기가 차안에 차고넘쳤습니다.

《용케 피웠구나. 세월을 앞당겨 꽃을 피운다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의 마음은 끝없이 기쁘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습니다.

제 21 과
우리 걸상

어느 봄날이였습니다. 공부가 끝나자 어린이들은 마당으로 나와 공차기를 하였습니다.

한창 신나게 공을 몰고가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문득 멈춰서시여 한 아이를 부르시였습니다. 그 아이의 바지뒤가 째져있었던것입니다.

그 아이는 째진데를 만지며 아침까지도 일없었는데 이상하다고 하면서 울상을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아이가 앉았던 걸상을 찬찬히 살펴보시였습니다. 걸상앉음판에 못 하나가 조금 솟아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그 아이더러 걸상에 앉았다 일어서보게 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그 못때문에 바지가 째졌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두덜거리며 걸상을 발로 툭 걷어찼습니다. 《딱》하고 걸상 넘어지는 소리가 교실안에 울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넘어진 걸상을 바로세우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네 옷이 째진것은 아깝구 유치원걸상이 마사지는것은 아깝지 않니? 이 걸상에 못이 솟은것두 네가 걸상을 정히 다루지 않구 망탕 굴렸기때문이야.》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걸상을 드시고 밖으로 나가시여 솟아난 못을 돌멩이로 박아넣어가지고 들어오시였습니다.

그다음 손바닥으로 걸상을 쓸어보기까지 하시였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바를 몰라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째진 바지를 어머님께 기워달래자고 하시며 댁으로 데리고 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책걸상을 아끼고 정히 다루도록 동무들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제 22 과
들놀이가는 날에

유치원에서 들놀이를 가는 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어머님께서 깨끗이 빨아 다려주신 옷을 입고 집을 나서시였습니다.

한 동무네 집앞에 이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만 걸음을 멈추시였습니다. 웬일인지 그 동무가 울며 서있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달래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집 마당으로 들어서시여 왜 그러는지 알아보시였습니다.

그 동무는 더 좋은 옷을 입고가겠다고 조르고있는참이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아이가 알락달락한 멋진 옷을 입고 가는것을 보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동무에게 다가가시여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뭘 그러는가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옷을 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 동무는 눈물을 씻으며 **김정일**대원수님의 옷차림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깨끗이 빨았을뿐이지 늘 입고다니시는 옷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그에 비하면 자기 옷은 너무도 좋은 옷이였고 또 새 옷이였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새 양말이였습니다.

그제서야 그 동무는 칭얼대기를 그만두고 **김정일**대원수님을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그 집 어머니는 보통옷차림을 하시고 유치원으로 가시는 나어린 대원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탄하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아버님과 어머님이시고 훌륭한 아드님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언제나 옷차림을 수수하게 하고 다니시였습니다.

제 23 과
나도 잘못했어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번은 동무를 울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의아해하시는 어머님께 동무를 울리게 된 이야기를 하시였습니다.

그날 동무가 와서 놀다가 그만 커다란 문짝을 넘어뜨리게 되였습니다.

그 순간 그 동무는 자기 등으로 문짝을 받쳐 다행히 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큰 문짝을 일으켜세울수 없어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으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급히 달려가시여 문짝에 어깨를 들이대시였습니다. 그러나 두명의 힘으로도 문짝을 세울수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혼자서 문짝을 받치고있겠으니 빨리 아저씨들에게 알리라고 그를 보내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무는 욕을 먹을가봐 겁이 나서 슬그머니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무거운 문짝을 오래동안 혼자서 떠받들고계시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 하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는 견디기가 어려울 때 지나가던 경위대아저씨들이 달려와서 문짝을 세워주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길로 그 동무를 찾아가시였습니다.

그 동무는 다른 동무들과 함께 공차기를 하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그의 잘못을 이야기해주시자 그 동무는 잘못을 깨닫는다는것이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야기를 끝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는 어머님의 두손을 잡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어머니, 나도 잘못했어요. 울지 않게 이야기해줄수도 있었는데…》

그러시고는 그 동무를 데려다 함께 놀겠다고 하시며 밖으로 달려나가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동무를 아끼고 사랑하시였습니다.

제 24 과
잘라버리신 추리나무가지

어느 여름날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생을 데리시고 정원에 있는 추리나무

밑으로 가시였습니다.

열매가 주렁진 추리나무에 오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무가지를 톱으로 자르기 시작하시였습니다.

나무가지 하나가 잘리워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린 동생은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며 추리를 땄습니다.

그사이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낮게 드리운 나무가지 하나를 더 자르시였습니다.

동생은 그 나무가지를 끌고 창문가로 달려가서 웨쳤습니다.

《어머니!》

창문을 열고 내다보시는 어머님께 동생은 오빠가 추리를 따주었다고 자랑하듯 말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놀라시며 급히 뜨락으로 나오시였습니다.

아드님께서 한손으로 나무가지를 잡

고 다른 손으로 톱질을 하시느라 휘청거리는 나무우에서 땀을 흘리고계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가지를 다 자르실때까지 기다리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톱질을 다 끝내시였을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추리나무가지들을 왜 자르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늘 아침 산보를 하시다가 이 추리나무가지에 얼굴을 다칠번 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산보를 하시는데 방해되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려야 하겠어요.》

어머님께서는 그만 눈굽이 뜨거워오르시였습니다.

《어머니도 네 마음을 따르지 못하겠구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안녕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으시였습니다.

제 25 과
유치원마당은 우리가 쓸겠습니다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아침 일찍 유치원으로 나가시였을 때였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이 마당을 쓸고있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마당을 쓸겠다고 하시였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은 놀라며 못 쓰신다고 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나도 쓸줄 압니다.》라고 하시며 비자루를 드시였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는 큰 마당비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힘에 부친 그 마당비로 넓은 운동장을 교양원선생님과 함께 다 쓰시였습니다.

그러신 다음 이마에 내돋은 땀방울을 닦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 이제부터 유치원마당은 우리가 쓸겠습니다. 작은 비자루를 많이 만들어 우리 동무들에게 나누어줍시다.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내가 쓰는 비자루를 따로 매주셨습니다.》

댁으로 돌아오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어머님께 말씀드리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드님의 생각을 대견

해하시며 마당가에 댑싸리를 많이 심었다가 가을에 가서 유치원비자루를 매자고 하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꽃밭옆에 댑싸리를 심으신 다음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비자루감이 하루하루 커가는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곱게 다스려주시였습니다.

가을 어느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자그마하게 매신 마당비들을 한아름 안고 유치원에 나오시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무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겠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교양원선생님은 어리둥절해하다가 마당쓰는 일을 어떻게 아이들이 하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배우면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어려서부터 일하기를 좋아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어린시절부터 일하기를 즐기시였습니다.

제 26 과
맹　　세

주체38(1949)년 9월 22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세상을 떠나시였습니다.

온 나라는 눈물에 젖고 하늘도 슬픔에 어두워졌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크나큰 슬픔을 참을수 없으시였습니다.

눈을 감으시면 어머님의 모습이 자꾸만 안겨왔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어머님이시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바로 그전날 아드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너희들은 아버지장군님을 잘 모셔야 한다.

아버님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나라가 튼튼해지고 인민들이 더 잘살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대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어머님의 마지막말씀일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시였던 **김정일**대원수님이시였습니다.

어머님과 마지막으로 헤여지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슬픔을 누를수 없으시여 어머님께서 계시던 방으로 달려가시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반겨맞아주시던 어머님은 안계시고

어머님께서 남기신 권총만이 대원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 권총을 가슴에 꼭 안으시였습니다.

그리시고는 크나큰 슬픔을 이겨내시며 앞으로 이 권총을 마음의 억센 기둥으로 삼고 어머님의 말씀을 꼭 지켜나가리라 굳게 마음다지시였습니다.

며칠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을 모시고 동생과 함께 어머님의 묘를 찾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묘에 엎드려 몸부림치는 아드님과 따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시였습니다.

《너희들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머니처럼 조국의 훌륭한 아들딸이 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의 말씀을 받으시며 어머님의 뜻을 언제나 잊지 않고 반드시 지켜가리라 다시금 굳게 맹세다지시였습니다.

제 27 과
동생을 보살펴주시며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이였습니다.

댁에 들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보셔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이 울먹이는 소리로 엄마를 찾으며 아버님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그러는 동생을 아버님의 품에서 받아안으시고 다른 방으로 가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조용히 동생을 타이르시였습니다.

《이젠 엄마를 찾으면 안돼. 네가 엄마를 찾으면 아버지는 일도 못하시고 속상해하신다. 이제부터 엄마가 보고싶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울지 말고 나한테 와야해. 그래서 함께 어머니 사진을 보자.》

눈물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생과 함께 밖으로 나가 정원을 걸으시였습니다.

그후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유치원에 나가시여서도 동생을 살뜰히 보살펴주시였습니다.

동생이 있는 방에 자주 찾아가시여 잠에서 깨여난 동생을 두팔로 안아도 주시고 뿔달린 염소를 만들어주겠다시며 손으로 시늉도 해보이시였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까르르 웃었습니다.

한번은 어린 동생이 열이 나며 앓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근심하시는것이 못내 가슴아프시였습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우며 이마도 짚어주시고 시간맞춰 약도 먹여주시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너무도 안타까와 어머니묘가 있는 모란봉쪽을 향하여 《어머니!》 하고 소리쳐부르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앓는 동생을 꼭 껴안으시고 뜨거운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대시였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엄마》 하면서 오빠의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대원수님의 품이 동생에게는 어머님의 품으로 느껴진것이였습니다.

얼마후 동생은 열이 내리고 병이 나

았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생을 돌보시여 아버님의 걱정을 덜어드리시였습니다.

제 28 과
이어받으신 장대

이른새벽이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소란스럽게 들려오는 참새소리에 잠에서 깨여나시였습니다.

몹시도 떠드는 참새소리를 들으시니 어머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다시금 떠오르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얼른 일어나 뒤울안으로 가시여 긴 장대를 잡으시였

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대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새벽마다 이 장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며 참새떼를 쫓아버리군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쫓는 사람이 없으니 또 참새들이 날아와 제멋대로 우짖는것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앞뜰로 나오시여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쉬고계실 방을 바라보시며 참새를 날리시였습니다.

장대를 흔드실 때마다 지저귀던 새들이 새벽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발끝걸음으로 큰 나무와 처마밑을 쉬임없이 오고가시였습니다.

소란하던 새소리는 뚝 멎고 창문가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까지 주무시지 않고 일을 보시던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갑자기 새소리가 멎은것이 이상하시여 창문밖을 내다보시였습니다.

뜻밖에도 나어린 아드님께서 큰 장대를 받쳐드시고 조심조심 새들을 날려보내고계시는것이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만 눈앞이 흐려오시였습니다.

천천히 밖으로 나오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아드님의 손에서 장대를 받아드시며 갈리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였습니다.

《… 이제는 … 네가 이 장대를 쥐였구나.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머님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그대로 이어나가시였습니다.

제 29 과
《농민들의것을 가지면 되겠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따라 자강도에 가시였을 때의 일입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동생의 손목을 잡고 산길을 내려가시는데 《오빠, 나 머루!》 하고 동생이 말하였습니다.

탐스러운 머루송이들이 담겨져있는 바구니가 길옆의 돌우에 놓여있었던것입니다. 감실감실한 머루송이들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생을 타이르시였습니다.

《안된다. 이건 우리 집 머루가 아니란다. 농민들의것을 가지면 되겠니?》

이것을 본 마을의 농민은 어서 머루를 바구니채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김일성**장군님의 자제분들께 머루밭을 다 올린들 무슨 잘못된 일이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어린 동생은 기쁜 얼굴로 농민이 쥐여주는 머루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도 동생이 머루를 먹게 놔두고싶으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농민의 재산이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동생에게 인민의 재산을 그냥 가지면 아버님께서 걱정하신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쥐였던 머루를 그대로 놓았습니다.

이때 그곳에 오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농민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머루값을 받으라고 하시였습니다.

농민은 그게 어디 도리인가고 하면서 머루값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먹지 않는다고 하시며 머루값을 받으라고 거듭 말씀하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농민이 머루값을 받는것을 보시고서야 머루를 받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인민의 재산을 귀중히 여기시였습니다.

제 30 과
뜻깊은 설맞이모임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날 밤이였습니다.

어머님을 잃고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께서는 댁에서 설맞이모임을 여시였습니다. 아버님의 아픈 마음을 덜어드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유치원공부가 끝나고 어린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양원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밤에 우리 집에 꼭 오십시오.》

밤이 되여 교양원선생님이 **김일성**대원수님의 댁에 이르니 현관에는 아이들의 신발이 한가득 놓여있었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몸소 교양원선생님을 반갑게 맞아주시였습니다.

방안에는 유치원어린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이 와있었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교양원선생님에게 오늘 저녁 설맞이모임은 나어린 아드님이 혼자 조직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크게 될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유치원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다 모였는데 한번 즐겁게 놀도록 하라고 하시였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교양원선생님의 손을 잡고 피아노앞으로 가시여 출석노래부터 시작하자고 귀띔해주시였습니다.

그제서야 교양원선생님은 피아노를 치며 출석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웃음을 함뿍 담으시고 대답노래를 부르시였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요.》

방안은 흥겨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이들은 한명씩 일어나 대답노래를 씩씩하게 불렀습니다.

출석노래가 끝나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설맞이모임의 첫 순서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합창하자고 하시였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은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를 부르겠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의 말씀에 어머니들이 모두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교양원선생님의 피아노소리에 맞추어 어린이들은 우렁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어 독창과 쌍무, 방안이 떠나갈듯 사람들을 웃기는 재담도 하게 하시면서 설맞이모임을

즐겁게 이끌어나가시였습니다.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순서가 바뀔때마다 크게 박수를 쳐주시며 여간만 기뻐하지 않으시였습니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아버님께서 만족해하시는것을 보시자 너무도 기쁘시여 더욱 힘차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시였습니다.

뜻깊은 밤은 깊어갔습니다.

어머님을 대신하여 아버님을 즐겁게 해드리시는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러르며 교양원선생님과 어머니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이처럼 설맞이모임을 조직하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어린시절
(소학교 제2학년용)
제3판

집 필	량인옥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신호철	콤퓨터편성	정봉순
장 정	강철훈	교 정	오혜란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평양고등교육도서인쇄공장
2판발행 주체98(2009)년 3월 27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2월 15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2월 25일

교－11-보-193 값 5원